

어순도치구문의 담화 기능 분석*

강 소 영

(이화인문과학원)

<Abstract>

Kang, Soyeong. 2008. **A discourse function of Inversion.** *Korean Semantics, 26*. What has priority in the communication with the other is the transmission of correct messages.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various devices for smooth communication also is a way to lead the conversation. Conjecturing that the speaker's intention are contained in moving constituents leftward or rightward deviant from the regular word order, this paper has classified inversion constructions with transcription data containing natural everyday conversations as its objects, and investigated the mechanism of occurrence of these constructions. As a result, it appears that the rightward inversion construction reflects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transmission of the correct information. So the rightward inversion construction is one of the discourse devices that best meet the basis of conversation. Contrastively, the leftward inversion construction features the speaker's intention for the conversation participants. There are some advantages for making the hearer understand the gist of the speaker's messages in moving some constituents leftward in the current conversational situation even if the move elements are old information. In addition,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examples related to taking the initiative in conversations, including initial revelation of shocking contents for making the hearer pay attention to what are being said, and replacement of the topic presented by the other with the one introduced by the speaker, it can be claimed that

* 이 논문은 한국어의미학회 제22차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어순변동구문의 유형과 담화 전략 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순자 선생님, 그리고 꼼꼼하게 읽고 심사평을 남겨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드린다.

the concept of effective information transmission, rather than correct information transmission, is the main mechanism of occurrence of the leftward inversion construction.

핵심어: Inversion, discourse function, the speaker's intention, rightward inversion, correct message transmission, leftward inversion, interactive semantic functions, effective message transmission, taking the initiative in conversations, the hearer's attention

1. 서론

한국어는 주어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 순서가 자연스럽지만, 절대적으로 서술어 뒤에 주어, 목적어가 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이 문장을 완결한 뒤 주어, 목적어를 넣는 문장을 구어담화에서는 자주 목격한다.

- (1) K 전지연은 너무 한정돼 있다
N 안 되더라구
K CF 스타가 그렇게 없나?
W 아니 많은-많은데=
얘기가 될 만한 것들이

(1)은 '(CF 스타 중에는)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많다'에서 주어인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우측으로 어순 도치시켜 제시한 것이다. 'CF 스타가 없나?'는 K의 질문에 대한 답이므로 '많다'는 CF 스타가 많다는 것으로만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CF 스타가 많다는 정확한 메시지의 전달에는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우측어순도치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물론 어순도치는 오로지 우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래는 목적어가 좌측으로 어순 도치해 간 예문이다.

- (2) N 그니깐 애들이 그걸 읽으니까
 K 그 자료를 니가 미리 준다고?
 N ①줬어 수업시간에

(2)는 둘 사이에 수업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으로 ‘그것(수업부교재)’은 구정보이다. 따라서 N과 같이 ‘그것’은 생략한 채 ‘줬다(①)’와 같이 말할 수 있으나, K는 굳이 이(그 자료)를 문두에 내세웠으며, 따라서 ‘그 자료’에는 대화운영과 관련한 화자의 태도가 담기게 된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어순도치구문에는 이를 발화한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1)문장의 좌측, 우측으로 옮겨간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그들의 유형을 분류한 뒤, (2) 한 문장 내에서 위치가 고정적인 것들의 위치변동이 갖는 의미를 어순도치구문의 담화기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2. 선행연구 정리 및 연구의 대상

2.1 선행연구 검토 및 정리

지금까지 어순에 대한 연구는 고정된 것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특히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것의 정보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었다. 대표적으로 Halliday (1967)의 구정보, 신정보의 구분을 현저성(saliency)에 기준하여 구어담화 분석에 이용한 Chafe(1976)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화자의 의식 속에 현저히 존재하는 구정보는 어순 상에서 앞(문법적으로는 주어의 위치)에 오게 되며 화자가 발화할 때 청자의 의식 속에 도입되는 신정보는 문장의 뒤(문법적으로는 주로 목적어의 위치)에 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김미경(2002)에서도 나타난다. 이 논문은 대화체 담화의 선호논항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주어나 목적어 등 필수논항의 어순변동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제를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와 같은 원인을 들어 어순도치구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 절(예문 2)에서 지시대명사 ‘그것’이 구정보임에도 불

구하고 지시대상을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강조’라는 개념은 좀 더 많은 예들을 토대로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순도치구문을 화자의 담화전략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연구로는 정희자(1996)가 자세하다. 이 연구는 주제화, 좌향전위, 우향전위, 수동화 같은 수의적인 어순변화의 유형을 정리하고 있어 논의의 참조점이 된다.

- (3) 가. Cheese people have strong feelings about-
 나. Bill, he kissed Mary.
 다. They look cute, your younger sisters.

가)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cheese를 문두로 옮기고 주제의 기능을 부여한 주제화구문이며, 나)는 주제를 명시하기 위해 주제요소를 문두로 옮기고 그 본래의 위치에 이동된 명사구를 지시하는 조용대명사를 남겨놓는 현상 즉 좌측전위구문의 예시이다. 다)는 주제를 대명사로 표현하고 그에 상응하는 명사구를 문미에 놓는 우측전위구문의 예시이다.

이와 대응되는 한국어의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가. 예전 학급운영시스템은 제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나. 후지쯔 이거는 최대가 256인가 보다.
 다. 아니 나 앞에 그거 다 했잖아. 말하기의 어려움

가)는 목적어를 문두로 옮겨 학급운영시스템을 주제로 부각시키는 좌측전

- 1) 김미경(2002:332)에서 든 아래 예를 보아도 주어나 목적어의 우측어순도치가 단순히 강조의 기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가. 많은 사람이 보였죠? 그거
 나. 그리고 웃고 있어요. 꼬마들이요.

이들은 보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웃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나)를 강조하였다기보다는 메시지의 불충분함을 매우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강조’란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구문(주제화 구문)의 예이며, 나)는 주제요소(후지쓰)를 문두로 옮기고 조용대명사를 남겨놓은 좌측전위구문의 예이다. 다)는 우측전위구문의 예로, 말하기의 어려움을 일단 조용대명사 ‘그것’의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한 뒤, 세부 내용을 문미로 옮겨 기술하였다.

그런데 대명사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은 한국어의 특성을 보이듯 자료분석에서도 나) 다)와 같은 예시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아래와 같이 문장 성분 중의 하나를 좌측, 우측으로 옮긴 아래 (5)와 같았다.

- (5) 가. J 빨리 줘
 ①[왜 안 줘 너]
나. 해미 니 형은 왜 전화를 안 받니?
 윤호 ②[질 내가 어떻게 알아?

(5)와 (3-나,다)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는 대명사의 사용으로 지시체를 확인시키고 문미에서 이를 확인, 환기시키는 영어와 다소 다를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더구나 우측전위구문의 예로 제시한 (3-다)와 (4-다)를 비교해 봐도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인지된다. (3-다)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나눈 대화로, 대명사 ‘they’의 지시체는 같은 발화 장소에 있는 청자가 그 사진을 알고 있을 경우로 예상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4-다)는 무어라 정의할 수 없는 긴 내용을 일단 ‘그것’으로 제시해 놓고 나중에 이를 상세화하는 방식이다. 지시대명사가 아닌 담화표지로의 사용이 강조되는 ‘그것’의 사용 예는 영어의 ‘they’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예들을 보건대, 한국어의 어순도치구문의 발생기제, 즉 담화기능을 구체적인 담화상황을 토대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좌측, 우측으로의 도치에 내재된 담화기능상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별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본고는 좌측어순도치구문과 우측어순도치구문으로 유형을 나누고 이들이 담당하는 담화기능을 살펴려 한다.

2.2 대상자료의 기준과 범위

한국어의 통사적 구조상 그리고 정보의 흐름상 주어는 문장의 처음에 오고 서술어가 문미에 오는 구조가 자연스럽다. 그런데 실제 대화에서는 문장의 뒤나 앞으로 위치를 옮겨간 것들이 나타나며 따라서 이를 어순도치구문이라 불렀다.²⁾이의 기본적인 것은 SOV구조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앞, 뒤로 옮겨간 것이며, 이외에 수식어 바로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문두나 문미로 이동해 간 부사도 있었다.³⁾

- (5) 가. 굉장히 허탈한 말이다
 멘트다
 그거 진짜
나. 난 지금 개요에서--
 개요짜기할 때
 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열심히
다. 그럴까?
 나도 조금 어렵긴 했어.
 독해가 조금 나도 힘들긴 하더라.

(5-가,나)는 주어와 부사어의 우측어순도치구문의 예이며, (5-다)는 좌측어순도치구문의 예이다.

그러나 구어담화는 말의 끊김과 이어짐이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미로 도치된 주어처럼 보이지만 다음 문장의 주어인 경우가 있어

2) 전위구문이라는 용어는 정희자(1996)에서와 같이 좌측으로 위치를 옮긴 것(좌측전위구문)을 둘로 나누어 제시(주제화, 좌측전위구문)할 경우, 상위개념이 하위개념과 동일한 명칭이 되어 이는 피하였다.

3) 자료는 한 번에 떠오른 정보를 한 줄의 억양단위로 표시하는 전사방법을 택하였다. 억양단위(intonation unit)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화자의 생각이 하나의 통일된 억양곡선(intonation contour)으로 실현되는 것을 포착하여 이를 기준으로 대화를 전사하는 방식이므로, 이전의 연구들에서 담화의 운율적 단위인 억양단위로 전사함이 구어체 담화를 분석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Chafe 1994, 김해연 2001, 전영옥 2003 등)

이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 (6) J 웬 놈의 동굴이 그 : 령계 오래 나오나
 [1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 w ①[1기분 더럽죠]
- ②[2 언니 그거 정말--]
- K [2 기분 너 : 무 나쁘고=]
- J 응
- K ③기분도 너무 나빴어 나 사실 그거
 ④길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못 보겠더라구.

(6-③)은 ‘나는 그거 사실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문장에서 주어가 우측으로 도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래 ④ ‘나 (사실 그거) 길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못 보겠다’와 연결시켜 보면 ④의 주어로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측도치구문의 예에서 제외한다.

또한 구어담화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기에 말겹침과 분절 그리고 수정이 수시로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이의 말이 개입되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도 잘못 말하여서 분절하는 경우도 있다. 말의 분절은 특히 잘 살펴 어순도치구문의 예에 넣을 수 없는 것을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예문에서 ①②는 ‘언니 그거 정말 기분이 더럽죠’에서 주어가 도치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K와 말이 겹쳐서 제대로 발화되지 못하고 말이 끊긴 것이므로 뒤에 진술될 내용의 주어인지 앞의 서술부(①)의 주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는 어순도치구문의 예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말겹침이나 분절에도 관여치 않고 주어와 서술어가 갖춰진 문장을 발화한 상태라면 이는 연구대상에 넣었다.

- (7)가. K ①[산으로 다 도망]을 갔잖아
- J ② [토포군들이--]
- ③그걸 토포군들이 가서 [싸우면] [서↗--]

- N [아 아]
- K [산에] 가서 다 토벌을 했어야 했다가.

- 나. K 아니 그니깐--
- ①[그 사람들이--]
- J ②[맨 마지막이--]
- K ③산으로 다 도망을 갔잖아=
- 토포군들이

(7-가)의 ③은 ‘토포군들이 가서 그것(도망간 사람들)과 싸우면서’에서 ‘도망간 사람들’을 문두로 도치하여 대명사화한 예이다. ①과 겹치면서 말이 끊긴 뒤(②) 새롭게 시작한 문장 ③은 후행절이 생략되긴 했지만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어 앞 문장과의 관계를 짐작케 하므로 고려에 둔다. (7-나) 역시 K와 J의 말이 겹쳐(①,②) K가 겹친 부분을 우측어순도치구문의 형식으로 수정 발화한 예문(③)으로, 말겹침 후에 새롭게 시작하여 주어를 도치시킨 예이므로 이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아래 예시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 분절한 뒤 새롭게 시작한 문장에서 도치가 발생한 경우여서 연구대상에 넣는다.

- (8) 갑: 왜,
- ①저번에 내가 너 그거--
- ②이영애
- 그거 보고 딱 들어갔잖아
- ③금요일날

①의 주어보다 선행한 ‘저번에’는 ③ ‘금요일날’로 수정되어 우측으로 전이된 예로 보인다. 그러나 문장이 끊어지고(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 상태(②)이므로 어순도치의 예시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② ‘이영애 그거 보고 딱 들어갔잖아’는 주제 요소를 문두로 옮기고 그 본래의 위치에 이동된 명사구를 지시하는 조용대명사를 남겨놓은 것으로, 좌측어순도치의 예에 넣었다. 지금

까지 본 것처럼 구어담화는 문어체와 달리 무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순도치구문의 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잘 가려야 한다.

그리고 말접침, 수정 등 화자 개인적인 말버릇에 좌우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구어담화는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성격에도 다양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의 자유로운 대화 2편, TV 드라마 2편, 토크쇼 2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⁴⁾. 이는 짜인 대화(TV 드라마)/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대화(私談), 사적(私談)/공적(연예인들의 대화)영역에서의 자유로운 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자료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춘 셈이다.

3. 어순도치구문의 담화 기능

3.1. 우측도치구문

앞 절에서 살핀 바대로 기본문형의 구조에서 우측으로 위치가 이동된 것들에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크게 나뉜다.

- (9) 가. K ①그거 영화에서 보면 되지
- J ②근데 영화에서는=
- K ③텔레비전에서는 못 보잖아 그런 거
- 나. 남자 좋아하지
- 얼마나 좋아하는데
- 우리 센터의 꽃이잖아, 니가.
- 다. K 그러니까
- ①그-언니두
- 지금
- 애들한테 조 짜고
- 기본 뭐--

4) 개인의 자유로운 대화 2편은 본인이 직접 녹음, 전사한 자료이며, TV 드라마는 SBS의 연애편지(3회)와 MBC의 거침없이 하이킥(1회)을, 토크쇼는 KBS 감성매거진 행복한 오후(2006.11.3)와 MBC 에너지(2006.11.9)를 대상으로 하였다.

- ②기본적인 그-틀만 있는 상태인 거[지 애]들이
- N
- [어어]
- 라. J 그래도 [h습] 한-그-구멍이 뽕 뚫리잖아
- ①그래서 봤다 다시보기로
- 그랬더니 진짜
- ②동굴신이 너무 오래되는 거야
- N ③동굴신이 재미없었다고
- 다들 그러더라
- J ④[응]

(9-가)는 동일한 텍스트를 텔레비전과 영화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으로, 대조되는 매체(텔레비전/영화)가 주내용으로 먼저 제시되고 있다(①②). 따라서 이와 원자료(만화)를 구별하여 원자료(만화)는 ‘그런 것’으로 지칭되어 우측어순도치구문으로 표현되었다. 담화맥락상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선 J의 발화(②)에서 생략되었고 더구나 J의 말을 K가 끊고 들어왔기에⁵⁾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측어순도치구문으로 제시한 ‘그런 것’은 이전까지 대화에서 등장하지 않은 주어 자리를 채워 자신의 말을 명확하게 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9-나,다)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야 하는 상황에 우측도치구문이 사용된 예이다. (9-나)의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은 ‘(모두들)센터의 꽃인 너를 좋아한다’이다. 따라서 핵심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꽃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너’를 문미에 제시하였다. 센터의 꽃이 너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9-다)는 ‘상태이다’의 주어인 ‘언니(의 상황)도(①)’ 대신에 ‘애들(의 상황)’을 주어로 내세우려는 화자의 태도를 우측어순도치구문의 형태로 표현하였

5) 말을 끊고 들어왔기는 하지만 무례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J의 말에서 말늘어짐이 발생하여(근데 영화에서는=) 휴지가 발생하였고, 이는 말을 끊고 들어와 뒷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 기본적인 틀만 있는 것은 언니반 아이들의 상황인데, ①로는 명확하지 않아 이를 상세화하기 위해서 ‘애들이’를 우측어순도치구문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상세화하는 모습을 (9-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4회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의 여부는 이 회차에 대한 자신의 비평(②)과 N이 대신 표현하고 이에 맞장구친 ③④)을 실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화자에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봤다’를 먼저 제시하고 그 방법(다시보기)은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화자의 목적으로 우측으로 옮겨 문미에 나왔다.

지금까지처럼 주어나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문장의 필수성분들이 우측도치구문의 형태로 나타나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아래처럼 수의적 성분도 위치이동하여 문미에 나타나기도 한다.

(10) 부족했던 것은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10)은 논평이 먼저 나오고 그 논평이 오로지 자신의 입장임을 ‘제 생각에는’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견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 생각에는’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상대방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이다. 따라서 언어의 1차적 기능인 정확한 의사전달이 언어의 2차적 기능인 대인관계를 증진시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음을 (10)에서 알 수 있다.

메시지의 상세화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협력구문이 아주 잘 보여준다.

(11) W 그래서
유일하게 나왔던 게
산소같은 여자였어
K 아아=
W 산소 같은 여자로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N 아아=
K ①애들 뭐--
②[LG 자이]
W [LG 카드를] ③못-못-못 [꺼냈구]
K ④[이미] 지나가 버렸잖아 LG 카드가

(11)은 K와 W가 서로의 머뭇거림을 보완하기 위해 말을 꺼냈다가 말 겹침이 일어난 예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서로의 협력이 돋보이는 구문이다. K가 먼저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하고 멈칫거릴 때(①) W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 K와 말겹침이 발생하였다.(②) 이의 영향으로 W 역시 적절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없었고(③) 이를 K가 인지하고 W의 말을 받아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④)

④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LG카드를 꺼낼 수 없었다(③)는 W의 의견을 받아, W가 꺼냈던 주어 LG카드는 뻔 채 서술부(이미 지나가 버렸다)를 상술한 부분이다. 그리고 말겹침으로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았다고 여겨진 ‘LG 카드’는 우측어순도치구문으로 명시화하였다. 결국 상대방의 대사를 이어나가려는 화자의 노력으로 주어가 우측어순도치구문의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에서 우측어순도치구문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⁶⁾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1)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피하려는 화자의 노력과 (2)청자와의 협력으로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우측어순도치구문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6) 아래 예문 역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우측어순도치구문의 예로 적절하다.

(1) N 잠깐만
수업이 맞긴 [맞는데].
K [맞는데] 수업이

(1)은 N의 말을 예상하여 k가 맞장구를 치는 순간 말겹침이 일어났고, 따라서 주어가 도치되어 나타난 구문이다. 협력구문에서의 우측어순도치구문의 예로 적절하다. 자세한 것은 강소영(2007)을 참조.

N은 ②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좌측으로 이동하여 맨 앞에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재 대화에서 논의의 핵심에 놓인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화자의 태도나 틀린 부분의 실체를 명확하게 가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좌측어순도치구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대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좌측어순도치구문을 살펴보고 한다.

아래 예문은 청자에게 자신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서술부)을 먼저 제시한 경우이다. 이는 불특정한 다양한 내용들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화자는 어느 내용이 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좌측어순도치구문은 충격의 수위를 높여 청자가 자신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 (15) 미 날 때부터 남자관계가 복잡한 거지
 은
 미 ①아휴명이더라구.
 ②.(0.2)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진지하게 사귄 남자가.

(15)는 서술부를 먼저 제시하여 청자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있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①만 발화할 경우 메시지가 불명확해진다. 그럼에도 서술부 먼저 제시(①)하고 잠시의 휴지를 두는 것(②)은 청자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이며, 따라서 청자가 궁금한 뒷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말걸침이나 수정이 빈번한 구어담화의 특성상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과정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좌측어순도치구문이 이런 경우 사용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는데, 먼저 대화의 주제를 한정, 제시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담

7) 이 전사자료는 비언어적 표현까지는 담고 있지 못하지만, 대화참여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어 논의의 참고로 삼았다.

은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6) 가. W 어제
 그거 봤는데
 K 대장금?
 W 아노
 상두야 학교 [@가자@]
 K @@@
 J 대장금 그거 인기 못 끝겠더라
 K 어?
 그거 시작했어?
 나. 준 이 자식은
 ①...(1.9)말이 안 통해.
 동 그러니까 은호,
 그녀석이
 민현중한테 반할지도 모른단 얘기잖아.
 너 얘기는

(16-가)는 W와 K가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J가 대장금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꺼낸 순간이다. 이때 좌측어순도치구문이 발생하였는데, 대장금 역시 이전 대화(새로 시작한 드라마의 목록) 속에 나왔던 것인지만 담화 상에 처음 등장하는 신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화제 중에서 하나를 대화의 공통의 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변칙적인 기법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를 위해 좌측어순도치를 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J의 의도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6-나) 역시 대화의 주제를 ‘은호의 연애 이야기’로 삼으려는 화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예문이다. 준이 동과는 더 이상 은호의 연애 이야기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①), 동이 원래의 주제인 ‘은호’를 논의의 전면에서 부각시켜 은호의 연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16)의 두 예는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화자의 의도로 좌측도치가 사용된 것이다. 여러 가지 화젯거리가 존재하기에 주제선정에서 우선권을 점하려는 화

자의 태도는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하며, 이 경우 좌측도치가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구어담화는 다양한 주제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대화를 이끌고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대화를 이끌기가 쉽지 않다. 특히 말실수가 일어난 경우에는 자신이 하려는 말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좌측어순도치구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데, 아래 예문은 적절한 말을 고르지 못하여 말이 분절된 경우이다.

(17) K 거기다 넣는 건가 봐 그리고

①요거 이--

②녹음도 있잖아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1.5) 구울 수가 있어.

17)은 MP3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 말을 끊은 뒤(①) 이를 수정, 발화(②)한 예문이다. 말의 분절은 다른 이의 말개입을 자연스럽게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며, 따라서 화자로서는 발언권 확보가 중요해진다. 이런 경우 ‘컴퓨터에 연결해서 MP3는 녹음한 것을 구울 수가 있다’의 문장에서 후행절의 주어인 구정보 ‘MP3’ 대신에 신정보 ‘녹음한 것’을 좌측으로 도치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군더더기 말(‘-도 있잖아’)을 사용하여 화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어 좌측어순도치구문의 사용으로 인한 화자의 발언권 확보가 자연스럽게 화제 제시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어순도치구문은 정확한 의사전달과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대화를 이끌려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 우측어순도치구문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주요 담화기능으로 작용하였다. 설령 상호협력적인 대화를 이끌려는 화자의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측으로 옮겨 표현된 것은 명확한 메시지의 완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측어순도치구문은 정확한 의사전달을 피하는 화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대화의 기본은 자신의 메시

지를 오해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며, 이의 첫 번째는 전달 내용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측어순도치구문은 기본에 가장 충실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담화 장치라 할 수 있겠다.⁸⁾

이에 비해 좌측어순도치구문은 대화참여자들을 상대로 한 화자의 의도가 돋보였다. 현재 대화상황에서 구정보일지라도 이를 좌측으로 옮김으로써 청자에게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시키는 데 용이한 점이 있다. 더군다나 청자에게 자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충격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한다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주제를 바꾸어 자신이 내세운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어나가는 등 대화 운용의 묘미를 살린 예문이 많아 정확한 정보전달보다는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개념이 좌측어순도치구문의 주요발생기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⁹⁾

5. 맺음말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은 정확한 메시지의 전달이 우선이다. 그렇지만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도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본고는 정상적인 어순에서 벗어나 우측, 좌측으로 자리를 옮긴 데에는 대화운영과 관련한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자연스러운 구어자료들을 대상으로 어순도치구문의 유형을 정리하고 이의 발생기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둘 모두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과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와 함께 우측어순도치구문은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달하려는 정확한 정보전달의 측면에서, 좌측어순도

8) 본고에 제시된 예문에서와 같이 주체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주어를 이동시킨 경우가 가장 발생빈도가 높았다(57회).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화자의 전략이 우측변동구문의 발생요인에 지배적이라 할 수 있겠다. 협력구문의 결과, 우측어순도치구문이 발생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4회) 우측어순도치구문의 대표형으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하였다.

9) 좌측어순도치구문의 빈도수만으로 보면,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이 우위에 있기는 하다(59%). 하지만 우측어순도치구문의 경우(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이 90%)와 비교해 보면, 좌측어순도치구문에서 돋보이는 것은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차후에 좀 더 많은 자료를 확충하여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치구문은 자신의 의도대로 대화를 이끌어나가려는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향후에는 담화자료마다 분포의 차이가 있었음에 주목하여 성별, 연령별 어순도치구문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발생기제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어지면 어순도치구문에 내재한 담화기능은 한결 세심하게 기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구현정(2002), “조건 담화의 순서 교대 양상”, 언어과학연구 21, 언어과학회. 1-24
- 김규현(2000), “담화와 문법”, 담화와인지 7.1 담화인지언어학회. 155-184.
- 김미경(2002), “한국어 대화체 구문의 정보구조”, 담화와 인지8-1, 담화인지언어학회, 21-42.
- 김용석(1981), “연결어미 ‘는데’에 대하여”, 배달말6, 배달말학회, 269-291.
- 김해연(1997), “기능문법과 담화분석”, 인문학연구 26,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17-39.
- 김해연(2001), “대화, 사회행위, 그리고 문법”, 인문학연구 33,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41-74.
- 박성현(1996), 한국어 말차례 체계와 화제, 서울대 박사논문.
- 서정수(1973), “접속어미 {ㄴ/는데}에 관하여”,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96-98.
- 이기동(1979), “The pragmatic function of the connective nuntye(in korean)”, 인문과학 41,4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17-142.
- 이은경(1998), “텔레비전 토크쇼 텍스트 연결어미 분석”, 텍스트언어학 5, 167-198.
- 이희자(2002), “의사소통의 최소단위로서의 발화문과 문장”, 텍스트언어학 1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43-366.
- 임규홍(1996), “국어 생략현상에 대한 연구”, 어문학 57, 한국어문학회, 281-319.
- 유구상(1975), “국어의 도치에 대한 고찰”, 한글 155, 115-144.
- 유현경, 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123-144.
- 전영옥(2003), “한국어 억양단위”, 담화와 인지 10-1, 담화인지언어학회, 241- 265.
- 정희자(1994), 주제의 담화기능에 대하여, 언어학, 563-598.
- _____(1996), 영어 담화에서 담화전략과 어순변화, 담화와인지 2. 21-45.
- 홍사만(1983), 국어 특수조사론, 학문사.
- 채 완(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39, 93-113.
- Brown P. & S. Levinson(1987),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Chafe, Wallace(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Subject and topic, ed. by Charles Li and Sandra A. Thomson, 27-55, New York: Academic Press.
- Chafe, Wallace(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 Bois, John, Schuetze-Coburn, Stephan, Cumming, Susanna& Paolino, Danae, (1992), Discourse Transcription, Santa Barbara Paper in Linguistics, Vol.4
- Ford, E. C(1993), Grammar in interaction,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ndel et al.(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 274-307.
- Halliday, M. A. 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Kuno, Susume(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3, 269-320
- Kuno, Susume(1978), generative discourse analysis in America. Current trends in textlinguistics, ed by Wolfgang Dressler,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275-294,
- Lee, Hyo Sang(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suffix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 Prince, Ellen(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Radical Pragmatics, ed. by Peter Cole, New York: Academic Press. 223-54..
- Schiffrin, Deborah(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ng-Yae Park(1998), The Korean connective nuntye in conversational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1, Elsevier Science B. V.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120-750
전화번호: 02-3277-6731
전자우편: sy7440@ewha.ac.kr
Fax: 02-3277-2146

원고 접수일 : 2008년 7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8월 13일